

화순군, 지역발전지수 평가 전남 郡단위 1위

전국 159개 지자체 평가...3회 연속 상위권 기록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생활 서비스 분야 강세

화순군의 지역 발전 우수성이 전국 시·군 대상 비교평가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화순군은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2년마다 평가하는 지역발전지수(RDI) 평가에서 전남 군 단위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가한 이번 결과는 전국 159개 기초 지자체 발전 지수를 측정해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발전지표를 기초로 ▲생활 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 활력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군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생활 서비스 부문 6위, 삶의 여유 공간 부문 11위를 차지하며 ‘웰빙’과 ‘힐링’ 콘텐츠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생활 서비스 부문은 민선 8기 처음 도입한 ‘마을 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 주치의는 화순군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 의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 인력이 13개 읍·면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건강체



화순군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RDI) 평가에서 전남 군 단위 1위에 선정됐다. 사진은 우수 평가를 받은 마을주치의 사업 시행 모습.

조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료소에 따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심뇌혈관 예방 프로그램, 원예·미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정기적인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와 일상 활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총 393회를 운영해 5천763명 지역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다.

구복규 군수가 농촌 지역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대, 의료 환경의 열악 등 고

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심해서 내놓은 대책이 빛을 봤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삶의 여유 공간 부문은 ‘만연산 치유의 숲’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콘텐츠의 성공 추진을 높게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에 올해만 약 26만명의 탐방객이 만연산을 찾아 심신을 치유하며 힐링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였다.

구복규 군수는 “마을 주치의 제도에 이어 이동 빨래방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2년 뒤 힐링과 웰빙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력·주민 활력 부문에서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 산림 행정 평가 ‘대상’

산림 분야 우수 기관 3년 연속 선정

담양군은 22일 “최근 전남도 주관 2022년 탄소 중립 나무 심기 평가와 산림 행정 종합 평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담양군은 약 100여만본의 나무를 심어 탄소 중립 나무 심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 협약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생활 속 숲을 확대·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산림 행정 종합 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자원 육성 ▲도시 숲 조성 ▲산불 방지 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대응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군은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산림 행정 우수 기관임을 재입증했다.

특히 군은 봄철 산불 예방 대응·산사태 피해 우려지 안전 조치 강화로 인명·재산 피해 제로화에 기여했으며 도시 숲 조성 면적 확대와 천년 가로수길 조성·관리로 도심 속 녹색 생활 공간 조성을 확대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산림 분야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은 담양군과 지역민이 함께 숲을 가꾸고 조성한 노력에 대한 결과”라며 “생활 속 공한지·자투리 땅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산림 특화 작물 발굴·산림 소득을 올리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겨울 놀이터’ 내일 개장

곡성군은 22일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주말 겨울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차 마을 잔디광장은 인공 눈설매장과 불명 체험장 등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놀이존이 조성된다. 겨울 놀이터는 지난해 처음 운영돼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한 바 있다.

군은 썰매 타기로 주위를 이겨내고 가족과 함께 겨울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잔디광장 중앙에는 시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조성했다.

야외에서 겨울 놀이를 즐겼다면 따뜻한 실내 전시관에서 신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 생태학습관에는 샌드 크래프트·라이브 스케치·로봇 바리스타 등을 체험하고 연말까지 계속되는 하루 세 번 만나는 마술쇼인 ‘온종일 판타지’를 즐기면 된다.

‘치치뿌뿌 전시관’에는 레고 소품과 동물 스톨을 새롭게 비치해 어린이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요술랜드 체험교실에서는 10월부터 LED 디퓨저 만들기·우드 페인팅 등 주말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새롭게 자리한 요술사진관에서 기차 마을의 다양한 풍경과 함께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밖에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면 풍성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관계자는 “올겨울 가족과 함께 기차마을 겨울 놀이터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이호산 기자



곡성군 ‘비빌언덕25’ 준공

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최근 청장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주민 모두의 상생 플랫폼 ‘비빌언덕25’ 준공식을 개최했다. 비빌언덕25에는 청년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 일하집센터 등이 입주해 공간을 공유하며 지역 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사

순천시 내년 예산 1조3천931억 확정

시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88억 감액 의결

순천시의회는 22일 “최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2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이달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개선 사항 521건과 수법사태 26건을 발굴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내년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88억여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3천931억

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의 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원안 가결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

결 처리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원안 가결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미연 의원은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해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 마진을 규제하고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희(사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대변자로서 적극 임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023년 2월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업무보고·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순천=남정민 기자

광양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천743세대 5천297만원 혜택

광양시는 22일 “탄소 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전기·수도·도시가스)을 절감한 5천743세대에 총 5천29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환경부가 도입한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아파트 단지·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자가 받은 탄소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산정돼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광양시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문의 : 062)650-2099